

우리나라의 동인지 문화

근대적인 의미의 첫 동인지이자 문예지는 1919년 2월에 창간된 《창조》였다. 판형은 국판, 지면은 81면이었으며 유가지였다. 발행인은 주요한, 실질적인 전주는 평양감부의 아들인 김동인이었다.

이 잡지의 주요 편집자들은 위의 두 사람을 비롯 김환, 최승만, 전영택이었다. 모두 한국문학사의 초석을 다진 사람들이었다. 《창조》는 당시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동인들의 나이만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창간 당시 김동인과 주요한은 19세였고 전영택은 25세였다. 창간호에 실렸던 작품은 단편의 효시인 김동인의 〈약한자의 슬픔〉과 초창기 상징주의 시의 백미인 주요한의 〈불놀이〉였다(김은신 지음 《이것이 한국최초》 참고).

《창조》는 국내 문학사에 큰 의미를 갖는다. 계몽주의를 거부하고 사실주의를 표방했으며, 구어체 문체를 확립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더라’ ‘하도다’ ‘이로다’ 식의 문체를 ‘이다’ ‘이었다’ ‘한다’로 표기한 것이다.

이 동인지는 1921년 5월, 제 9호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 당연히 책이 팔릴 리는 없었고, 김동인의 자금마저 바닥이 났던 것. 김동인은 폐간의 변을 〈문단 30년사〉라는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폐간의 진정한 원인 내지 이유는 무제한한 인비(人費)였으니 마지막에는 3천부까지 소화되었지만 그 매상대금은 어디론가

국내 문단은 수없이 명멸한 문예지와 동인지 성격의 잡지들이 이끌어왔다. 암울한 시대 언론의 역할을 과감히 했고, 술한 문학작품의 근거지가 돼왔다. ‘동인지 콘테스트’를 열어 우수동인지를 선발한다는 것은 정신의 유산인 동인지 문화를 당대에 점수매긴다는 발상이어서 웬지 석연치 않다.

없어지고 매번을 새로 새 비용을 내온 것이 괴로웠다. 게다가 나도 차차 방탕에 빠지며 문학보다도 방탕에 더 고향을 느끼게 되어서...”

그 이후 국내 문단은 수없이 명멸한 문예지와 동인지의 성격을 겸한 잡지들에 의해 꾸려져왔다. 암울했던 시대 언론이 하지 못하던 일을 과감하게 해냈던 《문학과 지성》 《창작과 비평》 등도 국내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잡지들이었다.

그중 《창작과 비평》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1966년 1월 영문학자 백낙청의 주도로 만들어진 창간호는 132면에 가격은 70원이었다. 이후 《창작과 비평》은 술한 문인들과 문학작품의 근거지가 되면서 한국문학

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

《창작과 비평》이 1980년 비상계엄하 언론통폐합 조치에 의해 여름호(56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자 지식인 3천여명은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986년 복간의 조건으로 공권력에 의해 때어난 ‘창씨개명’을 당했던 《창작과 비평》은 2년 후인 88년 이름을 다시 찾게 된다. 6월 항쟁의 결과였다.

이렇듯 한국 문학의 역사는 곧 각 시대를 대표했던 동인지의 역사였다. 500여종의 동인지와 문예지가 난립하고 있는 지금도 국내 문학의 흐름을 가장 정치하게 보여주는 것은 역시 이들 문예지에 발표되는 작품들과 평문, 대담 등이다. 이들 문예지를 중심으로 짜여지는 문인들의 계보 역시 동시대의 문학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감대의 역할을 한다.

‘96 문학의 해를 맞아 첫 사업으로 조직위촉이 ‘동인지 콘테스트’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수 동인지를 선발해 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웬지 석연치 않다.

시간이 지나 한 시대의 정신문화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남을 수도 있는 ‘동인지 문화’를 당대에 점수를 매긴다는 발상이 그렇다. ❖

출판저널

통권 제185호/1996년 2월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연
기자—박남정 허연
 한동림 이정민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옥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대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human art

HART



표지디자인 전문

Total
DESIGN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금호빌딩 3F Tel:(02)512·4844 Fax:(02)543·1624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이력서
2)자기소개서
3)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리세기플러스
a publishing Co. 스위스그랜드 호텔 앞
☎(02)395-1945 ☎(02)396-3964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9-2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132호
☎110-611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분)

30,000원

* 반년분(11호분)

16,000원